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주간 충현

발행인 : 신 성 중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마 9:37~38)

범사에 감사 생활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온 교회가 지켜

오늘은 우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성경 잠언 3장 9-10절의 말씀처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통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교훈을 되새기며, 온 성도가 감사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정성과 마음을 바쳐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영국의 메이플라호가 청교도들을 싣고 미국에 건너간 해, 즉 신대륙에서 처음으로 추수한 곡식에 칠면조 고기 등 여러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지만, 사실 동 감사축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행해졌었다.

한국교회는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결정은 제4회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의 제의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월 셋째주일을 감사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날 감사헌금은 총회 전도국에 보내어 전도사업에 쓰고 있다.

오늘 우리 충현교회는 추수감사예배와 동시에 성찬식도 가지며, 32개 교회학교별로 추수감사예배 및 2부 축하행사를 자체적으로 갖는다.

그리고 저녁 찬양예배시에는

유치부 주관으로 추수감사 찬양 특순이 있게되며, 정성껏 가져온 과일(감, 사과, 배, 포도 등)은 불우한 이웃인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지체부자유자들에게 전달된다.

“저밭에 농부 나가 씨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이 찬송이 우리들의 신앙고백이 되어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 감사생활로 주님의 복음사역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드레회 교육 수료식

초등6부 교회학교

교회학교 초등6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정기봉 목사)는 안드레회 교육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11월17일 거행한다.

동 안드레회는 약 3개월간 교육이 실시되어 왔는데 전도활동의 이론과 실재를 병행하면서 8명의 교사가 집중적인 교육을

(매주 오전10시30분 오후3시) 통하여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동 교육훈련의 참가자는 약 40명이었으며, 엄격한 지도, 그리고 시험을 거쳐 최종 「전도어린이」들이 수료식을 갖게 된 것이다.

입시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1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본교회 입시생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가 11월 17일(주일)부터 12월 16일(월)까지 30일간 갈릴리홀에서 개최된다.

동 특별새벽기도회 시간에는 전교인이 입시생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한편,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10분간 배다니홀에서 입시생 및 학부모가 별도로 모여 새벽기도회 담당교역자로 하여금 기도회를 갖는다.

또 12월 13일(금) 금요기도회 시 입시생 개개인에게 담임목사·부목사가 개인기도하는 특별시간도 마련했다.

고 김원선 장로 교회장 임수

본교회 제2교구 교구장과 장년 4부 부장을 맡아 봉사하던 고 김원선 장로 장례식이 지난 11

월11일 오전10시 충현교회 뜰에서 거행되었다.

충현교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이날 말인예배는 평소 같이 봉사했던 장로들과 교역자들의 애도 속에 약 1시간 동안 신성중



▲ 고 김원선 장로

목사 집례로 진행되었는데, 윤용규 목사의 기도, 성경 계시록 14장13절 봉독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신성중 목사가 “주안에서 죽은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치민 장로의 약력소개, 조선근 장로의 조사가 있는 후 신성중 목사 축도로 마쳤다.

고 김원선 장로는 193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하여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 1969년 본교회에 등록, 80년 5월1일 제22대 장로로 장립 이래 교회에서 헌신·봉사·충성하시다가 지난 11월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조사 전문은 4면에 게재)

카메라 초점



▲ 91년도 교구총회 모습



▲ 매주 금요일 오후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기도회.
(전교인이 참석하여 기도의 불이 계속 타고르고 있다.)

오늘성찬식

주일 1, 2, 3, 4부 예배시

교회는 추수감사절인 오늘 대예배 1부로부터 2부, 3부, 4부예배시 1991년도 마지막 성찬식을 갖는다.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정기적으로 갖는 성찬식은 이번 추수감사절 주일 성찬예식이 마지막으로 거행된다.

본교회 성도 중 세례 교인들은 모두가 성찬예식에 참석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안내

개관시간

오전 10:00—오후 6:00(단, 주일은 오전 8:00—오후 6:30)

※ 공휴일 및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준수사항

1. 도서관 내 음식물 섭취 금지
 2. 강권 시작 외 다른 학과 공부 금지
 3. 일람실 내에서 절대 정숙
- ※ 도서관에서 함께 일할 자원 봉사자 기다립니다.

충현 프리즘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교구총회가 지난 8일 개최되어 새로운 교구일꾼이 임명된바 있다.

92년도에 충성할 교구장, 지도목사, 전도사, 지역장, 부지역장, 협력 구역장, 구역장, 권찰, 그리고 간사는 국제교구를 포함 17교구에서 2,846명의 일꾼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교구부흥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91년도 교구총회에서는 그간 몇년동안 중단되었던 교구일꾼 연말 위로 선물이 부활되어 흐뭇한 정경도 엿보였는데,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충성 봉사할 것”을 다짐하기도. ◎...지난 주간 3일간의 교역자 금식기도가 충현 기도원에서 있었는데, 장로들도 하루저녁 충현

기도원에 들어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기도했다.

◎...우리교회 성도들의 질서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 지난 8월말까지도 주일 대예배시나, 찬양예배, 수요일예배시 본당의자에 길게 처져있는 “줄”이 9월 중순부터는 아예 없어지고, 안내원들의 적극적인 안내도 없는데, 교인들 스스로가 앞자리부터 차례차례 앉는 모습이 역력하여 수준높은 충현교회 성도임을 과시하기도.

※ 교구위원회 조직이 완료되었다.

위원 장에는 손동운 장로, 지도목사는 최인근 목사, 그리고 서기에는 박영식 장로, 회계엔 김광남 장로가 맡았으며, 위원은 각 교구장이 맡는다.

※ 최근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해외로 이주한 위영환 장로, 김영근 장로가 잠시 귀국하여 본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당회원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가졌다.



충현강단



신성종 담임목사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여관이요, 우리 인생은 이 여관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인간은 조용히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끝없이 추구하다가 가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이 세상이 광야,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터임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에는 겹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였는데 본문 1절에 보면 그냥 "동산"이라고만 하였습니다. 겹세마네라는 말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그냥 동산이라고 하므로써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과 겹세마네 동산은 여러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에서는 아담이 죄를 범하여 모든 것을 잃었으나 겹세마네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므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투쟁이 낮이었지만 겹세마네에서는 밤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인류가 망하였으나 겹세마네에서는 본문 9절의 말씀대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고 공언한 것처럼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하와의 손에서 선악과 과실을 건네 받았으나 겹세마네에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십자가의 쓴 잔을 받으셨습니다. 겹세마네 동산에서는 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에덴동산에서는 아담이 추방을 당했으나 겹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동산에서 선과 악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밀로 밀로 내려가면 하향선의 인류의 역사가 겹세마네 동산에서부터는 위로, 위로 올라가는 상향선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2.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바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인사가 건강하십니까?란 말과 함께 요즈음 바쁘시지요? 하고 인사합니다. 교역자들의 하는 말 중에 재미있는 것은 오라는데는 없어도 갈데는 많단 말입니다. 저도 바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 저렇게 바빠서 언제 설교준비하지? 혹은 언제 기도하지?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물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주택을 찾지만 그러나

다음에는 자유를 찾고, 명예를 찾고, 행복을 찾고, 마침내는 영생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소위 문화가 형성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소규모의 "하천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고기를 잡고, 산에 올라가 동물들을 잡는 수렵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농사를 짓는 농경생활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다가 강을 중심으로 "강의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갯지스강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의 문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애굽의 문화, 양자강과 황하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문화, 유브라테강을 중심으로 하는 바빌론 문화,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도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로마때부터 모든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강이 아니라 바다를 중심으로 "해양 문화", 혹은 "대양의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스 문화와 로마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다가 그 후에는대서양을 중심으로 스페인과 영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더니 이제는 태평양으로 그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태평양의 문화가 세계의 중심문화가 될 것입니다. 소위 태평양 시대가

모든 것의 근원되시는 주님 찾고 그의 사랑 믿고 그에게 순종을!

온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이 이 문화의 중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잠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피한 것이 아니고, 숨은 것이 아니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주님이십니까? 잠언 28장 1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면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나다나엘이 물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는 북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중심으로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알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내로라". 이것은 내가 그이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내로라 할 때에 저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포하러 온 사람들이 왜 엎드려졌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님께서 내로라 할 때의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란 말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아이엠, I AM"이란 말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장 17절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즉 "I AM"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러가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메시아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서워서 물러가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반복해서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이 이름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름입니다. 칼보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마귀도 귀신도 들으면 떠는 권능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처해 있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십니다. 또 사탄이 물러갑니다. 따라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보배로운 이름인 나사렛 예수를 찾وسی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 않고, 세상의 것만을 찾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찾는다 해도 잘못된 동기로 찾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주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겹세마네 동산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인류를 비참함과 불행에 빠지게 하였거니와 주님은 그 시험 중에서도 건고히 있고, 죄를 짓지 않았을뿐

아니라 아담 안에서 잃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안에 있는가입니다.

최근 구원과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교리 문제에 대해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좁게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이것보다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며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구원을 받으니까? 물론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범한 바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과는 회개는 일회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번 반복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아무리 목욕한 자라고 해도 발을 씻어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마치 목욕을 하듯이 지난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발을 씻듯이 계속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사람들은 금을 찾아 모여들었지만 세계에서 제일 부채가 많은 나라가 되었고, 미국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여들었지만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세계의 제일가는 부자나라요 초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모든 것의 마스터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동기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에게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현논단
□□□□

1620년 12월 20일 101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65일간의 모진 고난의 항해 끝에 신대륙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한 해 동안에 굶주림과, 추위, 질병 등으로 거의 반 이상이 죽는 악조건 속에서도 원주민인 인디안들과 싸우면서 25에이커의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심어 첫 수확을 얻게 되었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당시 행정관이었던 브래드포드는 감사절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감사절은 일정한 날이 정해지지 않고 지켜오다가, 1789년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국가가 정한 추수감사절로 공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은 추수감사절을 '왕정시대의 관행'이라 하여서 중단케 하였고, 그 후 50여년간은 공식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 제16대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은 다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지키기로 공포하였다. 그 후 루즈벨트 대통령 당대에 와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너무 가까와 11월 셋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1620년 11월 11일 청교도들이 작성한 '메이플라워 계약서'(Mayflower Compact)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신앙고백이다. 그들은 그 계약서에서 ① 하나님의 이름으로 ②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 ③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④ 하나님의 존전에서 생활할 것을 서약하였다. 이 문서

는 그들이 수확한 후에 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는지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죽으나 사나 감사는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 정신이 첫 곡식의 감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둘째는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그 지역의 인디안들과 함께 축제를 가졌다는 점이다. 그들은 인디안들에게서 얻은 종자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이 날에 그들이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감사 정신은 아직도 그들의 역사속에서 끊이지 않고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08년 독도회에서 미국의 감사절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킬 것을 결의하였고, 1921년 총회 이후 11월 셋째 주일로 정하여 지켜오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11월의 상황이 추수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추석이 낀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몇몇 교회도 있으나,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이나 둘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다. 어느 때에 감사절을 지키든지 추수감사절의 본래 목적은 만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데 있다.

물론 감사절의 유래는 일찌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셨다. 특별히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출 20:3)고 명령하시면서, 오직 그 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기간으로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두번째 감사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우는 맥추절에 행하여졌다(출 23:16). 역시

이 절기는 보리를 완전히 추수하고 드리는 추수감사제였다. 세번째 감사는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초막절에 행하여졌다(출 23:16). 이 절기는 출애굽 당시의 초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밭에 초막을 짓고 7일간 머물면서 수확한 예물을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였다. 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

신앙 생활의 표현 양식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칼빈은 "감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최고의 예배 행위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감사는 삶 전체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삶의 전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자.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가? 이 감사의 절기에 그동안 잃어버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자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홍 창 민 목사(제8교구, 중동1부 지도)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최고의 예배행위"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되시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먼저 행동하셨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언제나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매년 세 번의 감사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첫번째의 감사는 유월절에 행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절이었다(출 12:1~28). 물론 절기

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명령한 것은 자신을 향한 그의 백성들의 헌신적인 희생의 제물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과 헌신 없이는 어떠한 감사도 드릴 수 없으며, 그것이 결여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열납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는 기독교

였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실천해보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시 136:1).

구명신 전도사 금년말로 은퇴

본교회 17교구에서 봉사하시던 구명신 전도사는 정년으로 금년 말로 은퇴하시게 된다. 이에 따라 구명신 전도사는 92년도 교구 일군에서 이름이 빠지게 되었으며, 후임교역자가 올 때까지 17교구를 담당하게 된다.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

오늘은 온 세계 교회가 기쁨과 감사 속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계절에 나 자신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하나 헤아려보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사만 구경하면서 분위기에 어울려 기분만 내다마는 감상적인 자리에서 일어나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풍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소산을 풍성케 하시며 물질의 풍요를 주셔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자리에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발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족하여졌다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치와 향락으로, 과소비와 허례허식으로 병들어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는 넓은 마음들을 주시고 풍년됨을 안하여 오히려 범죄하지 말고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 이래 염원하여왔던 남북한 유엔가입이 동시에 실현되는 큰 기쁨을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큰 발걸음을 견게 해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북음으로 휴전선이 무너지고 평양가서 부흥회하는 시온의 때가 어서 오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충현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서 모든 식구들이

장로 칼럼

감사절의 기도



차신득 장로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말씀의 꼴로 양육받으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자손손 이 성전을 사랑하며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게 하시고 모든 자손들이 지 성전들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충현교회를 향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케 하고 낮추시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권위주의나 완벽한 형식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용서와 관용으로 하나님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예수님만 높이고 전하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민족과 온 교회가 기쁨 속에 풍성한 감사와 찬송과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 2288번지 대구대학교 캠퍼스 내에 특수장애자 학교 수업 장면을 설립자 이신 이영식 목사님 내외분의 안내로 일일이 돌아보던 중 앞을 못보는 고등학교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관현악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쨍”하는 충격을 받았었다.

지도하시는 선생님 또한 이 학교에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는데 나이도 나보다 2~3살 많아 보일 정도로 느껴졌다.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

이미 수업시간이 끝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지도를 하시는데 그분은 장님일 뿐만 아니라 오른쪽 팔도 없으시면서 하모니카, 아코디언, 트럼펫, 또 피아노도 4부로 연주하시면서 개인지도도 하시다가 합주 연습까지 시키시는데 한쪽 손으로 두 손 뉘는 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손놀림이 민첩하셨다.

그일을 목격한 후 나는 정상인으로서 그분들보다 못한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독자 투고

“7대 독자가 고아되고 두 눈과 오른팔 잃고도 관현악 연주하며 하나님께 감사생활”

이요섭 집사(제7교구·초등6부 교사)

다짐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며 바쁘게 살다가 몸만 망가지는 것을 느낀 후로는 느긋하게 살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다니 이제는 또 남들보다 3~4막자 느린 행동이 습관화되어 버렸다.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참 요지는 이러하다.

강화도 교동 해변가에서 청원 황씨 7대 독자로 태어난 황재환.

그가 4살되던 해 6·25가 발발, 아버지께서는 월북, 그러므로 공산당 집안으로 지목을 받고있던 중 인민군이 한 차례 습격하고 떠나자 이웃사람들이 낮, 쇠스랑을 들고 가족을 헤치러 오는 것을 알고 피하여 도망치던 중 어머니는 상처를 받은 몸으로 또 다른 젊은 사람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지고, 할아버지께서는 가문의 씨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자를 업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몸을 숨기면서 필사적으로 도망하여 해변과 야산을 전전긍긍하시다가

선달 추위에 손자를 업지 않게해 놓고서는 당신은 동사해 버리셨으므로 완전한 고아가 되어버렸는데 구걸할 주변머리도 없을 정도의 어린아이인지라 어쩌다 남의 집 부엌 밖으로 버려지는 밥찌꺼기를 훑어 먹으며 살았고 이 모습을 발견한 자식 없는 어느 가정에, 양자로 입적하게 되어졌으나 그 어머니마저도 또 여의고, 새 어머니 밑에서는 이전에 받아오던 정도의 사랑도 받지 못하게 되어 집밖 해변으로 나돌

“이 세상의 모든 장애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 멀고 팔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지요, 그 모습 그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에 비로소 감사를 드리게 되는 첫 경험을 하였었다.

고아원에 데려다 주셨던 군복에서 이제는 맹인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다가

겸손한 자세로 감사생활 앞장

면서 놀던 중 폭발물을 쫓아갔고 두들기다가 터뜨려 두 눈과 오른쪽 팔을 잃게되고 만다.

구사일생으로 미군병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던 중 군부대 내의 어떤 목사님의 주선으로 영생고아원에 입양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여덟살, 원장 할머니의 인도로 교회라고는 처음으로 가게 되었고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큰 희망의 복음을 듣게 된다.

이 목사님께 갖다 맡겨주셔서 덕분에 학교 기숙사에서 침식하며 부설 광명학교에서 공부하고 일과표대로 매일 예배드리면서 기도생활에 열중하던 중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학교에서 매우 소중히 다루는 피아노 건반을 불구자가 두들기기 시작하자 고장내 버릴까봐 주의를 시키는 선생님의 걱정을 해소시켜 가면서 피눈물 나는

연습 3년에 자신이 즐겨부르는 찬송가 곡을 연주하고 너무 감격하여 “영영” 울었더니 보고 듣는 이들이 “이제 아주 미쳐버렸나 보구나!” 하고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안타까워하는듯 하였으나 “너는 나가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지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자기 위치에서 성실히 감당하기로 결심하였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장님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었고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주십니다. 충현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생생한 메시지를 고아가 어머니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님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게 받아들여 예비된 자신들에게 주어질 복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여 남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자가 됩시다. 이와 같이 바라는 마음으로 '91년 추수감사절에 이 글을 함께 은혜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드립니다.

• 조사

고 김원선 장로님을 생각하며

며칠 전, 입원 중이시라는 김 장로님 소식을 들었지만 병원으로 성품 달라가 봐줄 수 없었던 것은 저의 가족 중에도 병환으로 입원 중인 어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병석의 모습을 제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에 아직도 생각나는 장로님의 모습이란 입을 굳게 닫으신, 부드러운면서도 강직하셨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돌이켜 보면, 장로님과 제가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같은 당회원으로 같이 일하며 교락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현교회에서 장로로 쓰임받게 된 사실을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협력했습니다. 교구에서, 교회학교에서, 최근 2년간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지난 3월인가 싶습니다. 제4회 제자훈련시에는 같은 방에서 밤에는 나란히 누워 우리 교회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더 큰 일을 맡으시게 되면서는 어떤

임무도 마다않고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앞장섰던 장로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며, 봉사하는 데에 장로님은 늘 모범이시였다고 같은 부서에서 일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시간

관념이 철저한 장로님이시었습니다. 모든 모임에 시간을 지키고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2부 예배 안내위원이 되시면, 2부 안내만 충실히 하고 예배 참석은 3부에 하시는 철저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관념이 대단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책임지고서 할 수 없는 일은 아예 사양하는 면도 없지 않았습시다.

꼭 한 주일 전 일이지요. 장로님이 맡고 있던 장년4부 교사들이 야외예배 가는 날 당신의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장로님은 사모님이신 김옥래 권사님을 대신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금년 들어 언제인가 봅니다. 몸이 쇠약해지시며 일에 자신이 없다는 판단에서인지 장로사직서

를 몸에 지니고 다니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장로로서 책임을 다 못할 때에는 사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뉘는 것이지요. 교회가 풍랑 만난 배처럼 시련을 겪게 되니까 몹시 안타까워하시던 모습, 눈에 선합니다.

김원선 장로님, 지금 이 곳, 장로님이 즐겁게 많이 걸으신 이 교회 뜰에서는 사랑하는 가족 등 유족들과 장로님이 존경하시

“우리는 장로님이 남기신 신덕과 업적을 길이 되새기면서 이 슬픔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던 김창인 원로목사님을 위시하여 신성중 담임목사님, 장로님과 같이 일하던 교역자님, 당회원들과 수많은 교우들이 장로님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로님을 모시고, 이 좋은 예배당에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장로님이시여, 이 곳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옵소서.

이제 의젓하고 소탈한 모습과 믿음직한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김원선 장로님의 진실한 신앙 인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남기신 신덕과 업적을 길이 되새기면서 이 슬픔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현교회에서 장로님과 같은 훌륭한 제2, 제3의 김원선 장로님이 계속 배출되기를

기원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과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세 아드님에게 이어져 천국일꾼을 키우신 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남기두신 사모님과 자녀손들도 뉘뉘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님, 김원선 장로님이시여, 하나님 나라에서 길이

쉬시옵소서.

주후 1991년 11월 11일 당회원 대표 조선근 장로 올림

청년1부 면려회 총회 마쳐

청년1부(부장/ 박승준, 지도/ 김찬곤 목사)에서는 면려회 총회를 통해서 92년도를 이끌 회장단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회장/ 김상봉, 부회장/ 이정직, 김현화

간추린 교계뉴스

◎ 기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유호준 목사)는 지난 4일 코리아 호텔에서 신임교단장 추대에 배를 드렸다.

감사의 말씀

지난 11월 8일 별세하신 선친(고 김원선 장로)의 장례 절차를 은혜 가운데 따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위로해주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마다 깊은 배려를 해주신 교회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도님들께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고인을 향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저희 가족은 고인의 진실한 믿음과 성도님들의 진실한 사랑을 본받아 이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겠습니다.

1991. 11. 12

유족대표 김상호 집사